마량놀토수산시장, 상반기 흥행 대박

반값여행 시즌2 교통·숙박 할인
강진 주말마다 북적 3만명 다녀가
하반기 물놀이 시설 등 추가 운영

강진 마량놀토수산시장이 상반기 흥행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관광형 수산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주말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마량놀토수산시장. 〈강진군 제공〉

강진군 마량면 마량놀토수산시장이 2025년 상반기 '대박 흥행'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관광형 수산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지난 4월 12일 개장 이후 6월까지 총 3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주말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 상인들의 매출은 물론 인근 식당, 숙박시설 등도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강진군은 올해 상반기 시장 운영을 위해 스틸데코 포토존, AI 캐릭터 변환 체험, 전복 최대 40% 할인 이벤트, 영수증 이벤트, 전망대 원데이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특히 공연 무대의 위치를 시장 입구에서 시장 중심부로 이전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식당이나 점포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무대가 들어서며 공연과 식사가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마량미항 토요음악회는 매주 토요일 열리는 정기 공연으로 지역 가수 공연, 관광객 참여 노래자랑 등이 어우러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새 무대는 이 음악회의 중심 공간이 되었고, 상인과 방문객 모두 "공연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진군은 반값여행 시즌2와 연계한 교통·숙박 할인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외부 관광객 유치를 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물놀이 에어바운스, 특별 이벤트 등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량놀토수산시장이 단순한 전통시장을 넘어 공연, 체험,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관광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상반기 동안 보여준 군민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는 반값여행 시즌2와 연계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마량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제철 맞은 화순 복숭아 예약주문 받습니다

화순 쇼핑몰 '화순팜' 20% 할인

제철 맞은 화순 복숭아.

화순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팜'에서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과일인 복숭아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정상 판매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사전 예약결제를 받는다.

배송은 복숭아가 본격 출하되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처음 화순팜을 통한 복숭아 판매 마케팅을 추진한 화순군은 시즌 한정 복숭아 판매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도 함께 추진한다.

복숭아를 사랑하는 먹방러나 요리 유튜버를 모집, 스토리 콘텐츠를 제작해 복숭아를 홍보하고 화순팜의 구매력을 활성화해 농특산물 판매와 농가 소득 제고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안진환 화순군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사전 예약 판매를 통해 제철을 맞아 출하되는 화순군의 다양한 복숭아와 품질 좋은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맛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7~9월 여행 경비 장성군이 쏩니다

최대 20만원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장성군이 여름 성수기인 7~9월 여행 경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행사를 추진한다.

누리집을 이용해 여행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여행을 마친 뒤 10일 이내에 여행사진, 지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내면 지출 경비에 따라 5만·10만·15만·2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희망 주소지로 보내준다.

장성지역 숙박업소, 식당, 커피숍 등의 이용내역이 모두 지출 경비에 포함된다. 단 캠핑, 카라반, 글램핑은 숙박업소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털사이트에서 '장성 방문의 해'를 검색해 공식 누리집을 찾은 다음 '쏠쏠한 여행 이벤트' 항목을 선택하면 자세한 설명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성군은 축령산 편백숲, 백양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장성호 수변길, 홍길동테마파크 가운데 세 곳 이상 방문하고 인증사진과 인증도장(스탬프)을 받으면 장성역 '여행자플랫폼'에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 중이다.

축령산 편백숲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고 모암주차장~추암주차장 구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백숲 트래킹 관광객 이동수단 전액지원'도 눈여겨볼 혜택이다. 전액지원사업인 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웃 담양군과 함께하는 행사도 있다. 양군의 관광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담양을 여행한 뒤 장성에서 커피숍이나 식당을 이용하면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장담할게 이벤트'도 운영 중이다. 단 사용자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부담은 적고 혜택은 풍성한 올여름 장성 여행을 자신있게 추천한다"면서 "가족, 지인과 함께 장성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건강증진사업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함평군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와 25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 운영 실적과 핵심성과지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군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더불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번 수상으로 함평군은 코로나 이후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겠다"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사업을 더욱 강화해 건강한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난 7일 윤병태(왼쪽 첫번째) 시장이 지난 7일 지역 축산 농가를 찾아 폭염으로 인한 폐사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축산 폭염 피해 최소화 현장대응 강화

환풍기·쿨링패드 등 설치 지원

나주시가 이른 폭염에 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대응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7일 윤병태 시장이 세지면 육계·오리 농가를 방문해 축사 환풍·냉방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 지역은 지난 3일 기준 연이은 이른 폭염에 닭·오리·돼지 3만7347마리가 폐사하면서 5억3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안군과 함께 전남에서 축산업 비중이 큰 나주에선 23개 농가에서 가축 373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나주시는 28개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 대책반'을 집중 운영 중인 가운데 다양한 폭염 극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337개 농가에 총 1억8200만원 상당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공급해 가축의 체온 상승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축사 열기 차단을 위한 지붕 열차단재 도포사업(1500만원)과 냉방 설비 확충을 위해 환풍기·쿨링패드 등 폭염 예방시설 설치(70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비용(3억6700만원)을 지원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대비책을 마련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공모 접수

1곳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담양군이 '2026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공모를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은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가꾸는 생활권 숲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숲 속의 전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모 대상은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국공유지 또는 마을소유지 등 공공성을 갖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소유 토지도 5년 이상 사용 승낙이 가능하다면 대상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쉼터숲형, 풍치숲형, 소득숲, 기타 특화숲 조성뿐 아니라, 기존 참여숲의 정비와 보완 사업도 가능하다.

대상지별 최대 5억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에는 숲 조성뿐 아니라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설치 등도 포함된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자체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도 현장심사, 8월 말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